

삼성ENG 공홍표 상무 “자랑스런 삼성인상”

삼성그룹은 1월9일 오후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2007 자랑스런 삼성인상> 시상식을 갖고 자기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았거나 회사의 명예를 빛낸 계열사 임직원들을 포상했다.

이건희 회장과 회장단, 사장단을 비롯한 임원진과 수상자 및 가족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상식에서는 △공적상 △기술상 △디자인상 △특별상 등 4개 부문에서 8개 팀 또는 개인이 상을 받았다.

경영성과 확대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수여되는 공적상은 중동에서 잇따라 대형 플랜트 수주에 성공한 공홍표 삼성엔지니어링 상무보와 고유의 마스크기술과 차세대 기술력 및 특허 확보에 기여한 한우성 삼성전자 상무보, 세계 최초의 성형공정 자동검사 시스템 개발과 생산라인 속도개선을 주도한 김택천 삼성코닝정밀유리 차장 등 3명에게 돌아갔다.

기술개발 유공자에게 주어지는 기술상은 세계최초 40나노 공정기술 및 CTF 구조를 적용한 32Gb 낸드플래시를 개발한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차세대연구2팀(최정달 연구위원 외 10명), 세계 최초로 북해 극지용 드릴십을 개발한 삼성중공업 기술총괄 기본설계2팀(이승준 부장 외 10명) 등 2개 팀이 수상했다.

창의적 디자인 개발을 선도한 임직원들을 위한 디자인상은 <보르도> 디지털TV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구축한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디자인그룹(강운제 수석 외 2명)이 차지했다.

이밖에 삼성 안팎에서 삼성의 명예와 경영발전에 특별한 공이 있는 개인과 팀에게 부여되는 특별상은 공기단축과 원가절감, 안전·품질시공을 통해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세보엠이씨 김종서 회장, 선진교통문화 정착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수상했다.

<자랑스런 삼성인상> 수상자는 1직급 특별승급과 함께 500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되며 재직 중 2회 이상 수상한 임직원은 <삼성 명예의 전당>에 추대될 수 있는 후보자역이 주어진다.

이건희 회장은 보통 <자랑스런 삼성인상> 시상식 2-3일 후에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으나 2007년에는 대내외 중대행사들이 겹쳐 통상적인 관례보다 1주일 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09>